

| 일반논문 |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 비판*

Critics on the Deceptive Formation of Modern Sooshin Discourse

박균섭

Park, Kyoon-seop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목차 |

1. 머리말
2. 근대의 군사·외교·정치적 파국과 수신담론의 발생사
3. 개화·자주·문명·부강의 허구성과 수신담론의 기만성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국문 초록 |

한국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수신담론은 자아의식과 주체성, 국가와 민족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군사·외교·정치 방면에서의 뒤틀린 근대적 출발은 급기야 한국인의 정신적 식민 상태를 배태하였다. 근대수신담론은 교육애를 강조하고 교수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학을 표방하였지만, 그 교육학은 국가와 민족이 제거되고 자아의식과 주체성이 작동을 멈춘 불모의 교육학 내지 사산된 교육학일 뿐이었다. 이처럼 식민권력과 친일파 지식인들의 기만과 폭력으로 인해 식민지 수신담론은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인격 도야의 과정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족의식이 삭제된 근대지상주의가 국가의 운명을 어떤 비극으로 빠트렸는가를 개화파 지식인들의 초상을 통해 우리는 생생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절대 팔아서 안 될 국가를 팔았고, 그 대가를 통해 누려서는 안 될 호사를 누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교육을 입에 담는다면 그 교육은 인식론적 폭력과 윤리적 폭정의 자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주제어

근대수신담론, 개화파 지식인, 정신적 식민 상태, 인식론적 폭력, 사산된 교
육학

1. 머리말

우리는 근대수신담론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수양공부론에 대한 성찰과 논의에 이어 근대의 이름으로 소위 근대수신담론을 만들어 갔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펼칠 수 있으며, 이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의 학교교육 중심으로 거론되는 인성교육론(이는 주로 학교인성교육론으로 통용된다)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말하자면 그 계보학적·시계열적 흐름과 추이에 대한 추궁이나 성찰 없이 교육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수양·수신·인성교육은 더 더욱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바,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이를 문제 삼는 비판적 논의가 엄밀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그 단층지대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수양공부·수신담론/인성교육론을 펼쳐 나가는 차원에서 근대수신담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수신담론의 기만성과 폭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화기 이래 교육을 내세워 그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정체성을 포장·미화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 근대수신담론의 지향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민족·국가·독립·주체에 대한 논의를 기조로 한 담론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근대적 출발은 정신적·의식적 식민지 상태를 속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논법이 요청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일까. 민족도 국가도 삭제된 교육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육이 과연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탈정치적·탈민족적 교육에 대해, 이도 또한 교육이라고 옹호하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교육학적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우리

는 분명 그러한 일련의 세계관에 대해 비상한 마음으로 문제 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근대교육=식민교육의 동시적 출발을 특징으로 삼는 근대수신담론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외세의 욕동과 역학에 대한 정체 분석을 엄밀히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 선상에서 수신담론의 핵심이어야 할 민족·국가·독립·주체 문제를 교육론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문제의식과 연구 주제가 생략·배제된 진공상태 속의 교육을 말하겠다면 그 교육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에, 근대의 군사·외교·정치적 파국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신담론의 발생사를 성찰하고, 개화·자주·문명·부강의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신담론의 기만성을 비판하여 근대수신담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2. 근대의 군사·외교·정치적 파국과 수신담론의 발생사

개화파 지식인들의 일반 행보를 보면, 그들의 높은 대일의존도로 인해 '개화파=친일파'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논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근대화를 위한 동력이 되었든, 자주독립을 위한 운동이 되었든, 그러한 거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에는 이를 주도하는 세력의 주체적·자주적인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지극히 믿지 못할 외세를 유일한 배경으로 삼아 믿고 따르는 무모한 일을 감행했다. 이러한 엇박자를 감안하여 이들의 주체적·자주적이지 못한 거사를 한국민족운동사의 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화파의 이러한 문제 장면을 두고 당시 미국의 외교관들까지도 개화파를 가리켜 ‘분별 없는 젊은이들(illadvised young men)’이라고 일갈했다.¹ 한국 근대교육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개화파를 한국민족운동사의 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일각의 의견 정도로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한국 근대교육사 해석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친일·매국·배족 행위가 구성되고 가동되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² 개화파 지식인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민족허무주의의 노선에 따라 한국의 역사·사회·문화를 열등 그 자체로 인식하고 서구=일본을 근대의 준거로 삼는 방식으로 개화·계몽·문명·근대를 강조하였다.³ 고종·순종 시대를 가르는 대표적인 사건은 동학농민군 전쟁과 1차 의병(전기 의병), 2차 의병(중기 의병), 3차 의병(후기 의병)으로 이어지는 의병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 기록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왜곡·굴절·축소시키는 작업을 드러냈다.⁴ 이러한 역사적 계기에 유의하여 말하자면, 고종·순종 시대를

-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의식의 탐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97쪽.
 - 2 박균섭,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인격교육』 16(1), 한국인격교육학회, 2022, 69~97쪽.
 - 3 박균섭, 위의 논문, 78~83쪽. 개항기·개화기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선의 ‘역사 시계’는 삼전도의 항복(1637)에 이은 명의 멸망 시점(1644)에서 멈춰 섰고, 그로 인해 조선은 쉬지 않고 ‘문명의 시계를 돌린 주변 국가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260~265쪽). 그 상황에서 개화·계몽·문명·근대 콤플렉스에 빠진 개화파지식인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정진적 독립을 갖추지 못한 채 ‘문명의 시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고 말았다.
 - 4 박균섭, 위의 논문, 78~83쪽. 고종·순종의 시대는 빛의 언어(建陽, 光武, 隆熙)로 형용되었지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부터 조선 정부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거사였던 항일의병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산·탄압·진압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것

일컬어 개화기라고 명명하는 것은 유길준-서재필로 과잉 대표되는 개화파의 세계관이기도 한 민족허무주의를 역사 인식으로 용인·추인하는 것이며 이는 친일·매국·배족 행위의 준동과 만연을 묵인·방조하는 문제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한국 근대교육의 문제를 다룰 때는 1876년(강화도 침략), 특히 1882년의 시점과 1894~95년의 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에 의해 세워진 갑오개혁 정권은 군국기무처(1894년 7월 설립)의 의안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의 구성 기반과 동력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데 있다. 정권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갑오개혁 정권은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갑오정권(제1차: 1894. 6. 25. ~1894. 11. 21. 제2차: 1894. 11. 21. ~1896. 2. 11.)의 개혁정책이 우리 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켜 갔다고 말하지만, 그 본질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 길을 닦아 준 데 있었다.⁶ 설령 그 상황을 두고 근대사회로 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체성 없는 근대화, 근대가 삭제된 근대화, 그림자 근대화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갑오개혁은 친일개화파가 주축이 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 성격의 왕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친일-개화의 성격이

은 어둠의 언어로 형용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박성순, 「고·순종연간 의병의 개념과 위상 변천 연구」,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199~228쪽.

5 전용호, 「김인환의 동학 연구와 문학비평」, 『한국학』 1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21~149쪽.

6 이영학, 「갑오개혁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2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89~126쪽.

본질적인 문제였건만 마치 제도만 바꾸면 되는 개혁인 것처럼 흘러간 것이 문제였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이 작동하지 못했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하에 경복궁을 기습하여 명성황후를 참혹히 살해한 사건으로, 이는 일본 내각이 만·관·언 결탁을 통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이었다.⁷ 구마모토국권당 출신의 주한일본공사의 기관지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謙藏)는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주도한 48명 중 한 사람이며, 을미사변 가담 범죄자 48명 중에 구마모토현 출신이 21명이나 된다. 아다치 겐조는 조선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선인을 계몽하기 위해서

7 「을미사변 120년, 명성황후 다시 보다」, 『KBS1 TV』 2015.11.26.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의 영어판 The Independent는 한국 최초의 영자신문으로 1898년 12월 4일 종간되기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서 발행되었으며, 대다수의 인식에 의하면 이 신문은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고 개화사상을 불리일으키는 계몽적 성격이 뚜렷한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이기석, 「The Independent를 통해 보는 조선말 한일관계의 이모저모」, 한국근대일본학회 2022년 10월 29일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40쪽). The Independent의 1897년 3월 9일자 사설에서는, 1895년 10월의 끔찍하고도 잔악무도한 그리고 정상적인 국제관계 속의 양 국가 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국가적 대변란(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일방적 가해자는 일본이고 일방적 피해자는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하듯 아주 객관적인 양, 주체자-가해자가 명시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서로 간의 “나쁜 감정(ill feeling)”과 “장벽(a barrier between the two peoples)”을 허물자고 하는 데서 당시 『독립신문』 주도 세력들의 친일 성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기석, 위의 논문, 243~244쪽). The Independent의 1897년 3월 25일자 기사에서도 을미사변에 대해, 일본 측의 책임과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이 그저 “가장 개탄스러운(most deplorable)”이라는 수식어 하나로 때우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한국인들의 대일 악감정이 자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표할 뿐이었다(이기석, 위의 논문, 243~244쪽). 이처럼 서재필의 ‘독립’이란 일본이 그려 놓은 시모노세키조약 속의 ‘조선 독립’, 즉 중국으로부터의 주종관계의 단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이기석, 위의 논문, 255쪽).

조선 언론에 의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그 일환으로 주한일본공사의 기관지 『한성신보』를 창간하였다. 을미사변은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나 주필 구니토모 시게아키(国友重章),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小早川秀雄), 사사 마사유키(佐々正之) 이하 사원 전원, 그리고 부산어학교 출신 스즈키 준미(鈴木順見), 『국민신문』의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특과원, 『일본신문』의 야마다 츠요시(山田烈聖) 특과원, 『호치신문』의 요시다 유우요시(吉田友吉) 통신원이 가담하고, 미우라 고로의 진두지휘하에 조선의 국모를 살해하는 국제범죄를 저질렀다.⁸

1894년 6월 10일 밤, 오토리 게이스케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을 침범하여 영추문을 불태우고 주상을 위협하여 정치를 개혁하기를 청하고, 모든 궁중의 보화와 기계를 탈취하였다. 이에 국가의 대세가 모두 왜적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당시 김홍집, 유길준, 김윤식 등이 오토리 게이스케와 손을 잡고 국가의 정법을 개혁한다면서 이를 ‘개화’라고 칭하였다. 최익현은 ‘개화’, ‘자주’, ‘문명’, ‘부강’ 등과 같은 말은 사전적·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일본적 욕망과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특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이며, 이들 개념은 사실상 개화론의 틀로 묶어 설명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개념군에 속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개화’는 사람을 금수로 타락시키는 일, 국가를 망치고 집안을 전복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자주’는 국가를 일본에게 넘겨주고서 우리나라의 정사와 법령에 대해 하나하나 일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일을 일컫는다. ‘문명’은 국가를 잃은 군주를 거짓으로 존중하고 호칭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일, 억지로 예의를 무너뜨리고 오랑

8 「을미사변 120년, 명성황후 다시 보다」, 『KBS1 TV』 2015.11.26. 참조.

개로 추락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부강'은 우리나라의 군제를 없애고 국가 방위를 폐지하여 국가의 형세를 날로 약화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근대사 연구에서 도통관념을 배제하고 오로지 문명담론을 내세울 경우, 그로 인한 역사 왜곡과 굴절은 심각한 정신적 균열과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한국독립운동사는 급진론(의병 투쟁)과 점진론(실력 양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가운데, 급진론의 질량은 약소한 반면 점진론의 질량이 과다한 형국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식과 통념에 의하면, 수신담론의 적용 장면은 점진론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마련이지만 개화와 지식인들의 세계관이 딱 그런 것이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황성신문』에서는 의병들의 활동에 대하여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실력 양성과 지식 계발, 자제 교육, 자산 저축 등에 힘쓰며, 한일 양국의 관계를 친밀하고 원활하게 해야 함을 권유하는 논설을 싣고 있었다.¹⁰ 한국 근대 교육에 대한 논의 장면에서는, 도통관념(도학사상, 절의정신)에 입각한 의병 투쟁(그리고 망명, 자결 등: 처변삼사)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적 논의의 영역 밖의 이야기인 것처럼 처리하는 가운데, 문명담론(개화, 계몽, 근대)에 입각한 애국계몽활동, 민족개조론, 실력양성론, 준비론, 수양론에 대해서는 양적 분량을 확보하면서 집중 논의를 보여 준 연구사적 특징을 갖는

9 박균섭, 「면암 최익현: 일본관, 창의격문, 의병활동」, 한국근대일본학회 2022년 5월 21일 제44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88~199쪽; 박균섭, 「면암 최익현의 <일본정부에 부치는 편지[寄日本政府]>(1906.5.29.) 분석」, 한국근대일본학회 2022년 10월 29일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26~134쪽.

10 박한민, 「1907년 유길준의 귀국과 「평화극복책」 집필: 초고본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8, 고려사학회, 2017, 153~195쪽.

다. 한국독립운동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도통관념인가 문명담론인가에 대한 논의의 심층을 갖추는 작업은 분명 한국 근대사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¹

1896년 면암 최익현은 의병의 투쟁을 막는 직책[宣諭大員]을 맡아 달라는 고종의 명에 따르지 않는 글(1896.02.11.)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였다.

신은 경저(京邸)에 갇혀 있을 때에 1895년 12월 28일(양력 1896년 2월 11일)의 일[俄館播遷]을 목격하였습니다. 역적의 괴수 김홍집과 정병하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나, 조희연과 유길준 이하 여러 역적들은 모두 도망쳐 잡지 못했습니다.……역적은 김홍집·정병하·조희연·유길준보다 큰 것이 없으니, 비록 만 토막으로 베고 관련 가족을 죄다 절멸시키더라도 오히려 신명과 사람들의 울분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죽였는데도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온 나라에 호령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도망하였는데도 처자를 물수하고 엄중하게 사찰해서 잡지 않고, 단지 심상한 작은 죄와 같이 보고서 한결같이 불문에 붙이며, 오직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만 힘쓰고 있습니다.¹²

한국 근대사 기술에서는 소위 개화파 지식인들에 대해, 그들의 개화의 꿈이 좌절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인식 양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11 김미영, 「이상언의 '한국유학사관'과 '도의정신': 국정국사교과서에 반영된 '실학관' 비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50,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61~93쪽.

12 『勉菴集』, 卷4,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丙申正月十一日]」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엄밀한 정황 이해를 통한 정확한 얘기를 이어 갈 수 있을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대신 이지용-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 의한 한일의정서(1904.02.23.)는 내정 개입과 보호국화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고(제1조), 대한제국의 군사적 보호국화, 영토의 군사적 정복, 운용토지의 수용과 군수 지원 등을 법적으로 확인(제4조)한 것이며, 외교권 박탈을 의도한 것(제5조)으로서 외정권을 박탈한 1905년의 을사늑약과 내정권을 박탈한 1907년의 정미7조약은 한일의정서에서 이미 관철된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¹³ 하지만 이에 대한 무지와 기만은 1904~1907년까지의 주요 자료(한국: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일본: 『外交時報』)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에서는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보호국화 정책으로 이행되었다고 파악한 반면, 조선 측에서는 한일의정서의 내용 중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확인한 조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양상을 드러냈다.¹⁴ 그야말로 일본의 기만책에 넘어가 놓고도 그것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환의식·위기의식이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일의정서의 본질은 한국의 국권을 유린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대한제국 정부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중, 학부 등에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식민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⁵ 한일의정서 성립 당일부

13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파주: 청계출판사, 2017, 71쪽.

14 최덕수, 「근대 계몽기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2009, 111~141쪽.

15 그 결과 군사 고문에 육군 중좌 노즈 시즈다케(野津鎮武), 경무 고문에 경시청 제1부장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 고문에 농상공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増雄), 학부 참여관에 문학박사 시대하라 히로시(幣原坦) 등을 파견하거나 겸직시켜 해당 분야

터 일본은 반일 관리의 고립화 전략 및 퇴출에 주력하여 고종황제의 재정 담당자였던 이용익을 일본으로 강제 납치하였고, 그 자리에 국내 및 일본에 망명 중인 친일 인물들을 배치하여 그들의 식민 야욕을 관철하였다.¹⁶

최익현은 1906년 6월 2일[丙午閏四月十一日]의 상소문을 통해 김홍집, 정병하, 조희연, 유길준 등을 역적(의 괴수)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형용으로 이들을 “왜적의 손톱과 어금니가 된 우리 안의 역적들[我賊之爲彼爪牙者]”이라 명명하였다.¹⁷ 왜 그들을 우리 안의 역적들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농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를 농단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일본[왜적들]의 농간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잠시 외교권을 일본에 빌려 주었다가[暫借外交權於日本]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를 기다려 되찾아 오겠다[待吾富強索還]”는 기만의 언어를 번연히 드러냈기 때문이다.¹⁸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과 통념을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것을 방안이라고 제시했고, 그 방안에 따라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유길준은 1907년 시점에서 소위 「平和光復策」을 제시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사랑하는 본의와 진정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우리에게 부강의

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이 간여하였다. 위키실록사전(<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의 “한일의정서” 참조.

16 위키실록사전(<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의 “한일의정서” 참조. 이용익은 1905년 9월 말 한국을 탈출해 고종의 밀사로 황제의 친서를 갖고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로 갔으나 1906년 1월 12일 통역으로 접근한 김형도라는 한국인의 연발권총에 의해 피격되어 중상을 입고 1906년 2월 24일 연해주에서 사망했다. 황태연, 앞의 책, 2017, 71쪽.

17 『勉菴集』, 卷5, 「倡義討賊疎[丙午閏四月十一日]」

18 『勉菴集』, 卷5, 「倡義討賊疎[丙午閏四月十一日]」

도를 권하고 부강의 도를 기대하며 우리가 부강해지는 날을 기다려서 장차 국권을 되돌려주려고 한다면서,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나서는 의병 항쟁은 그야말로 시국을 오해한 망동이자 의리가 변하여 광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의병들은 그 경거망동과 광기를 통해 부모에게 누를 끼치고 밖으로는 우방의 분노를 초래한다면서 당장 이를 멈출 것을 규탄하였다.¹⁹ 유길준을 두둔하고 나섰던 『황성신문』에서는 <俞氏의 光復策> 연재(1907.10.29~30)에 앞선 논설을 통해, 당시 의병들을 향해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실력 양성, 지식 계발, 자제 교육, 자산 저축 등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친밀하고 원활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권유하였다.²⁰ 하지만

19 『俞吉濬全書』, 卷4, 「平和克復策」 『承政院日記』 1907년(純宗 1) 10월 23일.

20 박한민, 「1907년 유길준의 귀국과 「평화극복책」 집필: 초고본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8, 고려사학회, 2017, 153~195쪽. 「警告義兵諸君」 『皇城新聞』 1907.9.25; 「警告日本當局諸公」 『皇城新聞』 1907.9.26; 「再警告義兵」 『皇城新聞』 1907.10.22; 최덕수 편, 『유길준의 知-人, 상상과 경험의 근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85쪽에서 재인용. 유길준 『황성신문』의 친연성은 『제국신문』의 논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1907년 5월 이후 발간된 『제국신문』은 신문 구독률을 높여 신문을 통해 대중의 성장을 이끌고 문명개화=자강을 달성코자 하였는데, 『제국신문』은 애국계몽단체, 특히 서북학회 지회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근대 문물을 일찍부터 접했던 지역인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에서 주로 구독하였다(심철기,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성격과 의병 인식」, 『역사와 경계』, 107, 부산경남사학회, 2018, 125~165쪽). 반면 위정척사사상의 대표적인 학파인 화서학파, 노사학파의 근거지이자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인 강원, 경북, 전남, 충북 등지에서는 『제국신문』의 신규 구독자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제국신문』이 추구하는 풍속 개량을 통한 문명개화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적 기반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심철기, 위의 논문). 『제국신문』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그랬던 것처럼 의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녔는데, 이는 친일적 성격이 가미된 문명개화론의 관점에서 의병을 인식하였기에 응당 의병 관련 기사는 부정적인 논조를 띠 수밖에 없었다(심철기, 위의 논문).

국망의 시계열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면 “의병은 일본의 선의를 오해했다.”²¹는 유길준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렸고, 그런 말을 하는 부류를 “왜적의 손톱과 어금니”가 된 자들, “우리 안의 역적들”이라고 매섭게 꾸짖었던 최익현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았다.

1911년 호남 유학자 양재경(梁在慶, 1859~1918)은 한국 근대사를 군사·외교·정치 방면의 화란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화란이 임오년(1882)에 시작하여 경술년(1910)에 끝이 났다.”고 해석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국망 이후의 수신담론은 무용·무망하다는 세계관과 역사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양재경의 시각을 통해 친일 개화파의 행보가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 양재경은 정통유학의 관점에서 개화와 국망의 역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²

① 국가의 화란이 임오년(1882)²³에 일어나 경술년(1910)에 끝났다. 화란은

21 『俞吉濬全書』, 卷4, 「新協約에對한談」

22 『希菴遺稿』, 卷7, 「國朝記事」, 노관범, 『껌테기 개화는 가라: 한국 근대 유학 탐사』, 서울: 푸른역사, 2022, 80~91쪽의 원문 및 번역문 참조.

23 유교 지식인의 위기 의식이 부각된 시점은 1882년이었음을 기억할 일이다. 임오군란은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이 큰 시련을 안겨 준 사건이자 가깝게는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고 멀리는 청일전쟁의 기원에 해당한다(김홍수, 「임오군란시기 일본의 조선정책과 여론」, 『군사연구』 136, 육군군사연구소, 2013, 35-64쪽).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로 조직된 간첩대는 한반도에 침투하여 비밀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미 1882년 이소비아시 신조(磯林眞三) 중위에 의해 최초로 노상 측도가 시도되었음이 밝혀졌다(남영우·渡辺理繪·山近久美子·이호상·小林茂, 「조선말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 135, 대한지리학회, 2009, 761~778쪽). 1882년 이후 조선은 일본 육군의 정복 대상이자 군사밀정체제가 정비되면서 조선에 파견된 정탐장교들을 중심으로 정탐활동이 추진되었다(윤해동,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군사조사' 활동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서리를 밝게 되어 단단한 얼음이 생기 듯 반드시 그 시초가 있는 법이다. 옛날의 현명한 임금과 재상은 늘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에 화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더러 처음에 헤뻐어도 나중에 능히 깨달아 잘못을 뉘우쳐 새 정치를 열었던 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임금과 신하가 만약 임오년에 잘못을 뉘우쳤으면 갑신년(1884) 난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갑신년에 잘못을 뉘우쳤으면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의 반란, 을사년(1905)과 병오년(1906)의 화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경술년(1910)의 망국도 없었을 것이다.²⁴

- ② 갑오년 6월의 변란으로 말하자면 당초 저들이 (병자년)화친을 간청할 때 서울 재상과 산림학자가 마땅히 최대부(최익현)처럼 궁궐 앞에 엎드려 저들을 물리쳐 끊는 상소를 올렸어야 했는데, 방관하고 침묵하거나 선동하여 조장하는 바람에 개항과 통상을 허락했고 필경 화호를 맺어 조약(강화도조약)을 만들었다. 이제 선왕의 전장을 뜯어고치고 성현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통 있는 복식을 망가뜨리고는 ‘자유’라 ‘독립’이라 이름했으나 실상은 야만을 써서 문명을 변개시키고 사람을 강등시켜 금수로 만든 것이었다. 정령 하나 내는 일도 행동 하나 내는 일도 반드시 왜적에게 자문해야 했으니 말은 ‘대경장’이라 하고 ‘대개화’라 했으나 국가를 멸망시키는 구실이었다.²⁵
- ③ 오후라. ‘독립’이 변하여 ‘개화’가 되었고 ‘개화’가 변하여 ‘보호’가 되었고 ‘보호’가 변하여 ‘합병’이 되었다. 밖으로 외국 공관과 담판하지도 못했고 안으로 최후의 결전도 치러 보지 못했고, 종이 한 조각에 삼천리강토와 오백 년 종사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주었으니 천하 만고에 듣지 못한 일이었다.²⁶

식민주의 역사학,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2015, 211~248쪽.

24 『希菴遺稿』, 卷7, 「國朝記事」. 노관범, 위의 책, 2022, 81쪽.

25 『希菴遺稿』, 卷7, 「國朝記事」. 노관범, 위의 책, 2022, 83~84쪽.

나라가 망한 즈음에서 당시 관료, 학자, 지식인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었던만큼, 그들은 대부분 일본이 조선 귀족령을 베풀고 귀한 작위를 봉해 주고 위로금을 하사한 일에 대해, 황은에 감읍·감복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의 종말, 수신담론의 절멸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시종 이교영, 김황진, 박선빈에게 명하고 남작 윤용구 등에게 나누어 칙유하기를 “지난번 시국문제를 평화로이 해결한 후 천황 폐하가 심후한 동정을 표하여 종친 및 전날 우리나라 일에 근로가 평소 있는 여러 사람에게 조선 귀족령을 베풀고 귀한 작위를 봉해 주고 위로금을 더해 하사하니 이는 실로 드문 훌륭한 거사요 특별한 대우인즉 나의 충심에도 또한 깊이 느끼는 것이다. 생각건대, 경도 나의 충심에 있는 바를 모두 헤아릴지니, 이런 까닭으로 지금 전 시종을 특별히 파견하여 이 뜻을 전해 깨우치게 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경건히 받아 내 마음을 편안케 하라”고 하였다.[그때 작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김석진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고, 조정구는 스스로 목을 베고도 죽지 않았으나 작위는 받지 않았다. 윤용구, 한규설, 유길준, 민영달, 홍순형, 조경호는 작위를 사양하고 반납하였다.]²⁷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사를 해석하는 장면에서 무수히도 많이 접했던 관점,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적 배경에는 이처럼 점진론 계열의 세계관(수양론, 개조론, 실력양성론)이 깔려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생태를 표상하는 언어(침략, 학살, 만행, 늑약, 침탈, 강탈)는 공생의 언어(병합,

26 『希菴遺稿』, 卷7, 「國朝記事」, 노관범, 위의 책, 2022, 85쪽.

27 『純宗實錄附錄』, 1910年(純宗 3) 10月 14日.

합방, 의무, 찬성, 안전, 보호)로 대체되었다.

개화파 지식인들 및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세계관을 형용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근대지상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문명담론에 입각한 근대수신담론의 작성 과정에도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근대수신담론이 근대지상주의와 문명담론의 연장선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와 민족의 토대가 상실된 상태에서 그저 교육의 힘과 그 중요성을 무한 반복 역설한다는 점에서 그 기만은 극에 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수신담론에서는 교육 보급을 통해 세상의 개명과 진보, 국가의 부강과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근대수신담론에서는 한국 개화기·일제강점기의 공간에서 교육 보급을 통한 개명 진보가 조선의 이익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이들은 일본 선의·호의론에 빠져 일본의 교육을 내세운 침략과 지배, 그 기만과 폭력의 본질을 간과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를 전반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²⁸

3. 개화·자주·문명·부강의 허구성과 수신담론의 기만성

근대적 학식과 실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애국자를 만나기 힘들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유생들 중에서는 바른 국가관을 가진 근대적 유지를 만나기 힘들었다.²⁹ 그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독립투쟁의 상황과 조건이 시시각각 악화됨으로써 의병 투쟁이 열세에 몰리는 반면, 해외에서는 독

28 박균섭, 앞의 논문, 2022, 78~83쪽.

29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파주: 청계출판사, 2017, 296쪽.

립투쟁이 더 활발해졌다.³⁰ 국내에서는 서울 개화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근대-개화-문명-계몽의 이념을 기반으로 삼은 수신담론이 펼쳐지는 경향을 보였고, 해외에서는 무장독립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가 독립을 찾기 위한 여러 접근법이 강구되기도 하였다.³¹

1895년 2월 2일의 교육입국조서³²에서는 덕양, 체양, 지양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근대수신담론의 자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는 지양, 덕양, 체양의 구도로 제시된 교육론이 교육입국조서에서 덕양-체양-지양으로 바뀐 내력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수신담론의 식민성을 포착할 수 있다.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대표적인 조선침략론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를 학문과 교육의 보급에 공헌한 제1급의 명예로운 인물이라고 칭찬했을 뿐 아니라, 그를 포함해서 침략 의도를 가지고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교육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할 정도로 외국의 침략 야욕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드러냈다.³³ 개화-개화기-개화담론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 황태연, 위의 책, 296쪽.

31 황태연, 위의 책, 296쪽. 해외의 독립투쟁과 관련해서는, 둔헌 임병찬(遯軒 林炳贊)은 외국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을 부류화하면서 특히 “서북 사람들이 그 생애를 걸고 수십 년 전에 집안을 나누어 도강해 산업의 뿌리를 뺏으니 곧 외국인과 같아졌으나 본국이 망했다는 것을 듣고 적개심을 이기지 못해 사적으로 학교를 개설하고 몰래 선비 무리를 연습시키는 경우”를 예거했다. 『遯軒遺稿』, 卷4, 「管見[知己]」, 황태연, 위의 책, 457쪽 재인용.

32 ‘교육입국조서’를 ‘교육에 관한 조서’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연호, 『사료로 읽는 한국 교육사』, 서울: 북이デア, 2013, 321~325쪽 참조.

33 尹健次, 이명실·심성보 역,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행동』, 살림터, 2016, 161~162쪽. 윤건차는 위의 주장의 근거로 『독립신문』 1898년 12월 12일 「잡보」 및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 「잡보」를 제시함.

근대지상주의에는 “전쟁 상태의 복류화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일본 군국주의적 욕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⁴ 이에 덧붙여 개화파의 트레이드마크인 근대지상주의는 동아시아적 근대라는 표상을 구축하려 했던 일제와의 타협의 여지를 이미 처음부터 내포했던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⁵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가 발행된 1907~1908년의 한국 근대사 장면은 두 국가권력(통감부, 대한제국)이 서로 길항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통감부는 우등/열등의 식민화 정책을 통해 대한제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³⁶ 당시 수신 교과서를 통해 드러나는 수신담론의 지형은 미개하고 게으른 열등자 대한제국과 문명화되고 부지런한 우등자 일본으로 그려졌으며, 그 흐름 속에서 당시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의 핵심 지향은 ‘착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었다.³⁷

최남선이 1909년에 신문관에서 십전총서(十錢叢書)의 하나로 편집·발행한 『산수격몽요결』(1909)은 근대수신담론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 준

34 姜徳相, 「一國史を超えて: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668,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2014, 6~23쪽.

35 박노자, 「서평: 김경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백산서당, 2003)에 대한 서평」, 『정신문화연구』 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341~347쪽.

36 강정구·김중희, 「식민화 교육 담론의 자체 모순과 혼란: 『학부의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81~209쪽.

37 강정구·김중희, 위의 논문, 181~209쪽. 당시 수신 교과목의 교수 요지를 구체화한 기표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기표는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국민에게 순응적·순종적·기능적인 덕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기표였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착한 사람’은 애국적·반일적 존재를 지칭할 수밖에 없으며, 비애국적·친일적 존재는 옹당 ‘악한 사람’(亂臣賊子, 人民의 仇敵, 不忠·腐敗한 官吏, 賣國奴) 쪽에 서는 것이었다(강정구·김중희, 위의 논문).

다. 『산수격몽요결』은 율곡 이이(栗谷 李珣)의 『격몽요결』(1577)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수신요령』(1900)의 합본 형태로,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다가 번역된 서구의 격언들을 일정한 체계 없이 집어넣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제자들의 초안에 검열·가필한 『수신요령』을 부록으로 첨부해 간행한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록인 일본 근대의 행동강령인 『수신요령』의 주제인 독립자존이 『격몽요결』의 주제인 정심 공부를 압도하는 형태의 편집본이 되고 말았다.³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사상적으로 정당화했던 인물이며, 아시아에 대한 전쟁 선동가이자 한국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압도적인 분량으로 드러냈던 인물인 후쿠자와 유키치를 율곡 이이의 철학사상과 연계 짓는 행위는 그야말로 율곡철학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³⁹ 일찍이 정신의 식민화가 진행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포획된 최남선은 『수신요령』의 덕목들을 국가의 우열이나 강약을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이념이자 소년들을 계도할 매우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세목들로 인식하였다.⁴⁰ 최남

38 임상석, 『『산수격몽요결』 연구: 서구 격언과 일본 근대 행동규범의 번역을 통해 굴절된 한국 고전』, 『코기토』 6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53~84쪽. 율곡이 정심 공부를 논하면서 강조한 입지론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침략주의에 입각한 입지론과는 극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편찬한 『조선출판경찰월보』(1928.9~1938.12)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당시에는 정치적·이념적인 주장을 담은 입지론은 식민지 검열 체계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들의 정신·의식세계 그 빈자리를 남여간의 연애로 채우는 것은 허용되었다(류진희, 「금지된 감정: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소설 기록과 탈/식민 센터벤털리즘」, 비교문화연구 54,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35~56쪽). 민족과 계급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을 부추기는 방식의 식민지인의 기획은 응당 금지된 감정이었다(류진희, 위의 논문).

39 박균섭,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인격교육』 16(1), 한국인격교육학회, 2022, 78쪽.

선은 일본의 근대수신담론을 오독했고, 이를 조선의 민족성을 검증하는 수신담론으로 차용했다.⁴¹ 한국 근대의 문명=개화=문명개화는 메이지시대의 도덕률 그 자체였으며,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 조선이 처한 정국과 현실 문제를 민족의 열등성에서 찾으려는 기만적인 수신담론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으며, 수신담론의 분량이 점차 증대하면서 급진론=투쟁론은 점진론=준비론 사상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⁴²

친일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유교 개념이 중용이다. 그들은 친일·매국·배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중용 계열의 언어(중용, 중화, 중정, 시의, 시중, 시국)를 활용하는 양상을 대대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의 일본식 굴절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사상의 본래적 가르침으로서의 중용은 퇴색되었고 그야말로 중용을 빙자한 기만과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용』

40 박근섭, 위의 논문, 2022, 78~79쪽.

41 박근섭, 위의 논문, 2022, 79쪽.

42 박근섭, 위의 논문, 2022, 79쪽. 최남선은 1909년에 『소년』지에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의 번역본(『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을 연재하였다. 이는 ‘로빈슨 크루소’와 ‘소년’이 20세기 초 최남선의 신대한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였음을 보여 준다(김남이·하상복, 『최남선의 신대한(新大韓) 기획과 ‘로빈슨 크루소』, 『동아연구』 5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9, 129~161쪽). 동서양 고전은 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성장=문명화하는 기관이자 자양분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처럼 로빈슨 크루소는 제국과 식민의 논리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조선이 문명화된 국가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달성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작동하였다(김남이·하상복, 2009). 데포(D. Defoe)의 『로빈슨 크루소』(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New York, 1719)는 최남선이 잡지를 통해 조선의 소년에게 문명화의 꿈, 문명의 지적 체계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김남이·하상복, 위의 논문). 문제는 최남선이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제국과 식민의 논리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에서는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도 있으며[天下國家可均也], 작위와 봉록을 사양할 수도 있으며[爵祿可辭也], 서슬피런 칼날을 밟을 수도 있지만[白刃可蹈也], 중용의 도는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中庸不可能也]”고 말하였다. 중용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를 친일·매국·배족 지식인들이 함부로 거론할 그런 개념이나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⁴³

일본 편향의 개화파 지식인, 그리고 일본형 유학으로 조립된 황도유학을 신봉했던 친일·전시체제형 지식인들은 유교의 기본과 근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의 친일·매국·배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중용(中庸)-시중(時中)-시의(時宜)-시국(時局)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한계와 문제는 지식인의 정직성의 확보라는 관점과 차원에서 논의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서구=일본을 근대의 준거로 한국을 열등 그 자체로 인식하는 가운데 개화·자주·문명·부강을 내세웠다. 개화파 지식인들이 민족을 부정하고 자학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그 근거를 『중용』에서 따오는 것은 지식인의 굴절과 변절, 그 층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중용』적 세계관(중용, 중화, 중정, 시중, 시의, 시국)을 통해 친일을 정당화했던 당시 친일 지식인들은 망국의 현실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자는 논법을 보여 주는 데 앞장섰다.⁴⁴ 그들은 국망의 위기, 망국의 현실에서 중용 계열의 언어를 동원

43 『中庸』 右第九章. 박균섭, 「선비의 공부와 인격: 유교 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논함」,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557-605쪽.

44 정육재,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59-85쪽. 유교 지식인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의 선택지는 세 가지[處變三事]-의병투쟁[學義掃清], 외국 망명[去之守舊], 자정순

하여 그들의 친일·매국·배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개화파는 일반적으로 급진개화파(=변법개화파)와 온건개화파(=시무개화파)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김윤식, 김홍집, 유길준, 어윤중 등이 속한다.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문인으로 일찍이 청나라 체류 중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흥선대원군 제거 전략을 제의하면서 국내 정치에 청나라의 개입을 주도하였다. 김윤식은 ‘불가불가(不可不可)’라는 교언으로 민족을 팔았던 사람, 죽어서도 민족운동을 분열시킨 노획한 정객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김윤식은 한일‘합병’이 선포되기 열흘 전에 열린 어전회의(1910.8.19) 석상에서 한일‘합병’에 대해 ‘불가불가’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不可, 不可]”는 뜻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찬성한다[不可不, 可]”는 뜻의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말이었다.⁴⁵ 조선에서 손꼽히던 대문장가가 아니었다면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을 ‘불가불가’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교언(巧言) 한마디야말로 정치가이자 학자로서의

국[自靖致命]이 있을 뿐이었다(『毅菴集』, 卷24, 「答湖西諸公」, 卷38, 「書贈李紀仲洪元玉歸故國」, 卷55, 「年譜」). 중용이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기에, 중용을 입에 담으면서 친일·매국·배족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애당초 선택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45 배향섭,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획한 정객,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분야별 주요인물의 친일이력서: 친일파99인 ①』, 서울: 돌베개, 1993; 임경석, 「운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학회, 2005, 81~109쪽; 이준식, 「3·1혁명과 친일파의 대응양태」, 『인문과학연구』 26,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09~138쪽.

김윤식의 본모습을 표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⁴⁶ 김윤식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국면을 지켜보면서 중국에는 조선을 보호해 줄 나라로 일본을 상정하였고, 자연스럽게 그가 사대하는 나라는 청나라가 아닌 일본이 되었다.⁴⁷

근대수신담론의 작동 양상의 하나로 당시 유학의 꿈을 안고 공부에 임했던 엘리트들은 출세의 길과 지사의 길 사이에서 정신적 갈등과 분열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갈등과 분열의 해법/해결책을 ‘실력양성론’에서 찾았다. 사실상 지사의 삶을 포기한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실력양성론이라는 것은 ‘실력’을 ‘양성’한다는 그 계량 부득의 방법론을 내세운 고도의 기만책이기도 했다.⁴⁸ 근대수신담론은 이처럼 조선인을 동

46 배항섭, 위의 글. 김윤식은 대제학이라는 유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한일합병에 찬성한 반민족적 측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가 일제 측으로부터는 “학발은염(鶴髮銀鬚)의 선인(仙人)과 같은 유학자”이자 “중정온건(中正穩健)한 정치가”로 평판이 나 있었다(배항섭, 위의 글). 김윤식의 인격은 『논어』-『맹자』 시대의 ‘향원(鄉愿)’을 닮았고, 19세기 서울의 ‘유속(流俗)’을 닮았으며, 20세기 ‘서울 개화와 지식인’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서울 개화와 지식인’에 대해서는 “필로폰 동양주의에 마취된 자들”로 형용되기도 한다(황태연, 앞의 책, 61~64쪽). 이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나락으로 추락하던 그때, 일본 왕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그들은 근대수신담론의 주조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이 삭제된 역사 속에서 교육의 힘을 역설하는 잘못된 행태를 드러냈다.

47 정성희,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윤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163~191쪽.

48 심지어는 당시 조선인 학생들 중에 제국대학 입학자들은 “출세의 길인가, 지사의 길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결국 그들 대부분은 제국일본의 관료가 되는 ‘출세의 길’로 나아갔다. 그들은 제국대학이 선사하는 ‘제국엘리트’라는 정체성과 식민지 조선에서 왔다는 ‘민족의식’ 사이에서 고민과 좌절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분열의 해결책으로 ‘실력양성론’을 내거는 영민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그들의 전략은 결국 제국의 이익에 흡수·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서동주,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과 계속되는 식민지

화=충량화=일본화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수신 교과는 민족 정체성을 버리는 교육, 민족을 배반하는 교육, 조선인을 일본인답게 하는 교육을 주도하는 교과로 규정되었다.⁴⁹ 발생사적으로 병학일여(兵學一如)·군교일치(軍校一致)의 사고권에서 배태된 근대수신담론은 조선인의 동화=충량화=일본화를 모토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순수한 의미로 교육의 본연을 실현하는 범주와 영역을 애초부터 이탈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⁵⁰

식민통치권력은 거족적이라 할 정도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3·1운동 당시 비무장의 만세시위대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학살되었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⁵¹ 당시 친일·매국·배족세력의 경우, 그들에게 3·1운동은 일제 식민권력이 통치의 위기를 느낄수록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파악하였다.⁵² 3·1운동은 민족운동 세력과 반민족의 길을 걸은 친일파의 분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했으며, 3·1운동은 민족운동에도 새로운 전기가

주의: 정종현의 『제국대학의 조선징』을 통해 본 한국 지식계의 변방성,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457~477쪽). 출세를 선택한 제국대학 출신자들은 제국에 '투항'한 엘리트로 규정되지 않고, 동포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 애초에 지녔을 '선의'와 '책임감'은 좌절·변질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들 다수는 유학을 떠나던 시점부터 시인 임화가 '지사의 비유로 들었던 '하늘의 별'이 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속세의 별'을 등대 삼아 달려나간 청춘들이었다(서동주, 위의 논문).

49 박균섭, 앞의 논문, 2022, 82~83쪽.

50 박균섭, 위의 논문, 2022, 83쪽.

51 이준식, 「3·1혁명과 친일파의 대응양태」, 『인문과학연구』 26,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109~138쪽.

52 이준식, 위의 논문, 109~138쪽.

되었지만 친일파에게도 일제 식민통치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⁵³ 3·1운동은 1919년 3월 즈음의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였던 셈이다. 당시 귀족대표 이완용, 종척대표 윤택영, 사회대표 조중응-송병준, 교육대표 신흥우, 유림대표 김윤식이 조선총독부에 한국의 독립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진정서⁵⁴를 제출하였고, 이에 김창숙을 비롯한 유림의 주도하에 파리장서(2,674자의 장문에 박종석, 김복한, 김창숙 등 한국 유림대표 137명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⁵⁵ 김윤식은 당시 친일 유림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자 3월 20일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對日本長書」)를 작성하여 3월 27일 조선총독 및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⁵⁶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청원’일 뿐이었고, 그의 대청-대일의식의 변화를 보면 민족적 자각보다는 사대적 질서가 익숙했던 지식인이자 관리일 뿐이었다.⁵⁷

근대수신담론의 정체는 상당 부분 1920년대의 조선민족성론의 전개 과정을 통해 포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조선을 반문명국의 전형으로 설정하고 조선인에 대해 언제까지나 개조만 하다가 말 민족으로 규정했던 이광수의 『민족개조론』(1922)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⁵⁸ 이광수는 진화론적

53 이준식, 위의 논문, 109~138쪽.

54 「獨立不願書」=「韓日不離請願書」=「合邦絶對支持韓日不離請願書」

55 권영배, 「파리장서운동과 성주유립」, 『대구사학』 137, 대구사학회, 2019, 95~128쪽.

56 『續陰晴史』, 下, 「對日本長書」

57 정성희,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윤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163~191쪽.

58 박균섭, 앞의 논문, 2022, 83쪽. 이광수의 민족개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그가 정신적 아버지로 받들었던 도산 안창호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러·일법인인도 조약>(1911.6.1) 이래, 러시아 당국은 한인들에 의한 공공연한 반일활동을 허용할

세계관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에 침윤되었으며, ‘약육강식’의 세계정세 속에서 ‘독립’을 말할 수 없는 ‘약자’인 조선은 ‘문화’를 통한 ‘민족의 보존’에 매진함으로써, 진화론의 한 원칙인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적자’로서 생존을 보장받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였다.⁵⁹ 민족의 ‘생존’은 ‘독립’의 전제일 뿐 아니라, ‘독립’ 자체보다 중요한 ‘목적’임을 통찰했다.⁶⁰ 피지배자 측의 대표적인 엘리트가 이처럼 자국의 민족성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한인사회의 원호인 자산가들이 의병 투쟁에 비우호적·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즉각적·무력적 방법을 통한 일본과의 결전을 주장하는 급진파(의병파)는 입지가 약화되고 교육문화운동/산업활동에 의한 점진적·장기적 방략을 구사하는 완진파(애국계몽운동 계열)가 설득력을 얻기에 이르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3). 그 지점에서 기호파(서울·경기·충청도 출신)나 북파(함경도 출신)가 아닌 서도파(평안·황해도 출신)가 중심이 된 국민회 계열의 활동이 부각되면서 안창호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나, 이들은 공화주의적인 정치이념과 미국인들(특히 미장로교 선교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 한인사회에서 친미적인 선전활동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의 의심을 받았다(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13년에 미주에서 안창호에 의해 창립된 단체인 홍사단은 재정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다가, 안창호의 사후에는 정치적 지향성을 강조한 혁신세력과 수양단체의 기능을 강조한 보수세력으로 분화되었고, 1939~1940년 무렵에는 미주 홍사단의 숙청운동을 통해 수양단체의 기능과 수양주의 노선을 강조한 보수세력에 의한 정치적 지향성을 강조한 혁신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이 있었다(조지숙, 「홍사단의 1차 약법개정 논의와 운동노선」, 『한국 근현대사 연구』 87, 2018, 289~322쪽). 1930년대 전반기는 수양동우회가 단체의 목적을 ‘수양에서 ‘독립’의 준비로 명시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던 시기였으나, 동우회사건 당시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던 안창호와 전향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친일로 나아간 이광수의 운명을 갈라 놓은 일이 있었다(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동우회(수양동우회) 기관지 <동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93~318쪽).

59 김미영, 「1910년대 이광수의 해외체험 연구」, 『인문논총』 7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05~341쪽.

60 김미영, 위의 논문, 305~341쪽.

데 적극성을 띠는 일리아말로 그동안의 근대수신담론은 민족의 도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민족 정체성을 붕괴시키고도 남을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⁶¹ 근대수신담론에는 이처럼 진화론적 세계관과 문명론이 침윤된 것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학문적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유길준을 사례로 들면, 그의 부강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저명한 진화론자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모스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의 지지자인 동시에 한국에서의 유교 문명과 중국 지배는 ‘부적자 생존(unfittest survival)’과 ‘비자연선택(unnatural selection)’의 비참한 결과이므로 유교 문명과 중국 지배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진화론적 문명론자이기도 하였다.⁶² 그리고 여기에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생물학: 생명의 진화, 심리학: 정신의 진화, 사회학: 사회의 진화, 윤리학: 도덕의 진화를 구성 요소로 삼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주로 획득형질의 유전이라는 라마르크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며, 자연도태설을 중시하는 다윈의 견해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주목할 일이다.⁶³ 스펜서는 다윈주의 철학자라기 보다는 라마르크주의 철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스펜서가 다윈의 이론을 취할 정도의 유연성을 갖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⁶⁴

61 손지연, 「일본에서 전개된 조선민족성 논의의 지형」, 『일본문화연구』 3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327~348쪽.

62 우남숙, 「유길준과 에드워드 모스 연구: 사상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157~185쪽.

63 W. Durant, *The Story of Philosoph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2. 황문수 역, 『철학이야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472~473쪽.

당시 개량주의자들은 진정 개인의 변화를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식민권력의 시선으로 볼 때의 사회적 혼란마저도 조선인의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담론에 포획되고 말았다는 데 있다.⁶⁵ 근대수신담론의 구조물을 해체하다 보면 응당 민족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스스로 차단하는 조선인 열등설을 만나게 된다. 그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근대수신담론으로는 정신의 식민화를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식민화를 부추기는 작용이 일어난 데다가 식민권력에 식민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및 식민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⁶⁶

근대수신담론의 정신 구조는 기본적으로 개화·계몽·문명을 역설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대수신담론은 식민권력에 순응·협력하는 방향성을 띠기도 하였고, 탈정치화·탈민족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근대수신담론의 작용 공간에서 민족과 국가와 독립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다가 급기야 일본 민족과 대일본제국을 염원하는 방식의 담론의 성격을 보여 주었다. 그야말로 수신담론의 핵심이어야 할 민족과 국가, 독립과 주체의 문제는 생략되고 건너뛰는 인식론적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소위 온건개화파(김윤식, 김홍집, 유길준, 어윤중···)의 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유길준은 남작 작위를 사퇴했던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다.⁶⁷ 이

64 W. Durant, 황문수 역, 위의 책, 472~473쪽.

65 손지연, 앞의 논문, 327~348쪽.

66 이선이,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담론 비교」, 『비교한국학』 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445~469쪽.

67 유길준이 남작 작위를 사퇴한 사실은 『純宗實錄附錄』, 1910年(純宗 3) 10月 7日 참조.

는 유길준이 친일과 분류 작업에서 명단이 빠지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 유길준의 세계관과 행보, 그의 본심을 읽어내는 사실상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아들 유억겸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⁶⁸ 1945년 이전의 유억겸의 행적을 통해 전쟁버전 근대수신담론을 접할 수 있는바, 그는 황도유학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유교원론에서 등장하지 않는 ‘멸사봉공’의 개념을 유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유억겸은 고도 국방국가체제 정비를 위해 황국신민의 최상의 희열을 ‘멸사봉공’에서 찾았으며, 비상시국에서 편협한 민족사상이나 불온사상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반도 2,300만 민중의 유일한 진로인 내선일체운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과 황국일본의 건설이라는 국민적 궁지와 포부를 안고 일로매진하여 동아와 세계 신 질서 수립이라는 성스러운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민족자결의 미망을 청산하는 일이었다.⁶⁹ 유억겸의 논조에 따라 식민지

68 유길준의 정체성 파악에 굳이 아들까지 동원될 일은 아니다. 최익현의 글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勉菴集』, 卷14, 「擬答俞吉濬[乙未十二月七日]」 참조.

69 俞億兼, 「皇國과 余의 心境」, 『三千里』 1941년 4월 1일, 174~175쪽. 유억겸은 연희전문학교 교수, 미군정청 문교부장을 지냈다. 유억겸은 유길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유길준이 나라가 망한 후에 자신의 생각이 오류를 범했다고 반성했다지만, 진정 그랬다면, 그 반성의 포즈는 아들을 향해서도 취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유억겸의 친일/반민족적인 언설을 접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길준의 반성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俞億兼, 「先親 俞吉濬의 生涯」, 『三千里』 1938년 5월 1일, 67~71쪽). 유길준의 아들 유억겸의 글을 실은 『삼천리』는 1929년 7월 창간 발행되어 1942년 1월까지 13년 6개월 동안 통권 152호를 발행한 종합 대중잡지인데(이승윤, 『삼천리』에 나타난 역사 기획물의 특징과 잡지의 방향성, 『인문학연구』 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457~480쪽), 일제의 대륙 침략과 왕도낙토 건설의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역사 담론 역시 점차 일제의 식민 지배를

수신담론의 본바탕을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삭제당한 존재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본인’이었다. 근대수신담론은 발생사를 통해서도 그 기만성을 드러냈듯이, 그 논의의 범주 및 지향 그 자체가 수신의 사전적·본래적 의미를 전면 이탈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훈련(訓練)·훈육(訓育)·훈화(訓話)·훈유(訓諭)를 특징으로 하는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삼아 전개되었다. 이는 응당 지도자·권력자의 생각이나 기준, 외부·상부의 규제와 압력에 수긍하고 복종하는 방식의 집단훈련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의 관심사였던 규율의식으로는 준법, 규율, 절제, 공덕 등과 같은 개인·사회도덕이 강조되었으며, 독립, 자치, 용감 등과 같은 정치도덕은 사실상 배제되었다.⁷⁰ 조회나 봉축식이 진행 중일 때에 학생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과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교사들은 교장의 순종적인 국민 만들기를 주제로 한 훈화에 대해 이를 경청했다가 각 학급에 들어가 그 취지를 알아듣게 설명해야 했다.⁷¹ 식민지 학교 규율은 학생들이 몸을 90도로 굽히는 복종의 태도, 구령에 따라 아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는 의식 속의 집단 광기, <기미가요>와 봉축창가가 일

정당화하고 총력전 체제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승윤, 위의 논문). 김동환이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보다 더 많이 지원병에 지원하도록 호소했는데, 조선의 청년학도가 일본의 군인이 되는 것만이 민족적 차별에서 벗어나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동등권을 획득하는 주요 방편이라고 믿었다. 그를 사로잡은 평등·동등권에 대한 환상은 식민지 지식인 상당수를 사로잡고 있었던 미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김승구, 「일제강점 말기 지원병제와 김동환의 시국 대응」,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45~378쪽).

70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파주: 서해문집, 2017, 372쪽.

71 김태웅, 위의 책, 372쪽, 374쪽.

으키는 비장한 정조, 식장의 엄숙한 분위기 등을 통해 형성·확립되었다.⁷² 식민권력은 운동장 조희나 봉축식에 임하는 학생들의 눈빛, 표정, 몸짓에 주목했으며 거기에서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전조를 읽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교육의 늪에 빠져들었고 그러한 사이 우리 안의 식민성은 더욱 짙게 자리 잡았다.

수신담론은 과연 수신을 위한 담론이었는가. 1943년, 국민학교(1941년 4월, 보통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5학년 박재철 학생의 경우를 통해 하타다 다카시가 했던 말, 조선인 학생들에게 “밝고 당당한 모습”, “살아가는 기쁨”,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근대수신담론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교사의 눈으로 볼 때도, 조선인 출신 친일 교사의 눈으로 볼 때도, 조선의 아동·청년·학도는 그저 잠재적 불령선인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거기에 품격을 갖춘 근대수신담론은 애초부터 작동을 멈춘 것이었다.

1943년 보통학교 5학년 때였다. 담임선생은 목포에서 온 조선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인과 똑같이 하고 다녔다. 어디서나 일본말을 했고 학생들도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급장에게 일본말을 쓰지 않는 학생을 감시하여 적발하도록 했다. 일본 신사처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는 유일한 선생이었다.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담임선생을 외면하고 다녔다. 반감의 표시였다. 수업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산수시간이었다. 담임선생이 고무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를 끌고 들어왔다. 키가 큰 소년은

72 김태웅, 위의 책, 374~375쪽.

뒷줄에 앉아 무심코 투덜거렸다. 그 소리가 담임선생의 귀에까지 들렸다. “조선 사람이 일본인 행세를 하다니.” 담임선생의 눈초리가 박재철 소년에게 쏘았다. 선생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을 능멸했다고 턱을 떨었다. 조선 말로 자신을 비아냥냈다고 분기탱천했다. “빠가야로!” 소년은 교탁 앞으로 불려갔다. 학생들이 일제히 담임선생을 주시했다. 담임선생이 슬리퍼를 벗어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처음에는 뺨을 십여 차례 때렸고, 나중에는 머리를 마구 후려쳤다. 코피가 터졌고 뺨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래도 소년은 물러서지 못했다. 학교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 옆 반 학생들까지 몰려와 발을 동동 굴렀다. 다른 반 선생이 달려와 말리는데도 담임선생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소년은 급장에게 이끌려 우물로 갔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물이었다. 얼굴을 씻고 옷에 묻은 피를 닦았다. ……“재철아, 니 맞을 때 나도 아조 죽죽드라. 우리 반 아이들이 모다 속으로 울었어야.” 급장이 뒤따라오며 위로했지만 컷등으로 흘렸다. 소년은 마지못해 한마디 했다. “산수를 좋아했는데, 지금부터 산수를 멀리할 것 같아야.” “그렇게 담임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승내라도 내라. 니만 손해개.” 소년은 끝내 담임선생을 찾아가 빌지 않았다.⁷³

식민교육의 시기, 사범학교령⁷⁴에서 규정했던 것처럼 조선의 교사들에게는 ‘순량’, ‘신애’, ‘위중’의 세 가지 덕목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교사를 미덕으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범학교수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교사는 학식과 덕성을 겸비하고 존경받는 전통적인 교사가 아니라, 식민지정책하에서 국가의 일률적 사상

73 정찬주, 『소설 무소유』, 서울: 열림원, 2022, 18~19쪽.

74 「生徒ヲシテ順良信愛威重ノ氣質ヲ備エシムルコトニ注目スヘキモノトス」(『師範學校令』一條)

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교사였다.⁷⁵ 식민지 조선에서 교사의 역할은 충량한 황국민 만들기에 있었고, 그 자장 안에서 근대수신담론의 정체성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권력에 포섭된 근대수신담론에서는 “지조가 건실한 학생”이란 다름 아닌 조선인으로서의 자아의식과 주체성·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조선인, 피와 살과 뼈까지도 일본인을 닮고자 하는 조선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4. 맺음말

하타다 다카시는 <식민지하의 조선>이라는 주제 아래, 동양척식회사, 치안유지법, 내선일체화·동화정책, 황민화교육,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조선인 강제 연행 등에 관한 문제를 기술하고 일본은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조선 민중의 저항>이라는 주제 아래, 전봉준이 일으킨 갑오농민전쟁, 최익현의 의병운동, 3·1독립운동, 1920~30년대의 민중운동 등과 같은 저항의 역사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⁷⁶ 일찍이 최익현은 “일본에 외교권을 잠시 빌려 주고 우리가 부강하게 되면 다시 찾는다.”고 말하는 우리 안의 역적들에 대해 나라를 망치는 원수로 규정한 바 있다. 최익현이 말하는 우리 안의 역적들이란 대부분 시간 궤적을 그리면서 친일 성향을 드러냈던 개화파 지식인들이었다.

75 김순전·사회영, 「식민지하 교사양성과 『사범학교수신서』 연구」, 『일본어문학』 36, 한국 일본어문학회, 2007, 159~186쪽.

76 旗田巍編, 『朝鮮の近代史と日本』, 東京: 大和書房, 1987.

문명개화론을 바탕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개화파 인물 박영효와 유길준은 일본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된 자들로, 이들이 내세우는 개화란, 일본을 모델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옹당 왕권과 대립하였으며, 그들은 왕권을 조선 근대화의 걸림돌로 생각하였다.⁷⁷ 그들의 개화가 위태롭고 한심했던 것은 유길준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보호조약을 맺은 진의는 평화에 있다고 무한 신뢰를 보냈고, 통감정치인 한국 외교의 대행이며 내정의 지도라고 옹호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유길준은 민족 저항의 궤적에 대해 이를 시국을 오해한 오합지졸 내지는 경거망동으로 폄훼하는 방식으로 독립·자존·저항의 역사를 지우는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⁷⁸

민족의식이 사상된 근대지상주의가 국가의 운명을 어떤 비극으로 빠트렸는가를 개화파 지식인들의 초상을 통해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 분석을 통한 교육학적 논의를 제대로 이어 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수신담론의 공효와 성능을 기술하는 입장은 그것이 교육학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불모의 교육학 내지는 사산된 교육학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근대수신담론의 이름으로 그 재구성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식민성을 타파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020년을 기점으로 광복 75주년, 경술국치 110주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 100년의 교육·학교 문화 정립을 모토로 삼는 마당에서

77 주진오, 「박영효 vs 유길준(하)」, 『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78 주진오, 위의 글.

아직까지도 잔재 청산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일그러진 역사, 비정상적 교육 경로를 거쳐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며, 이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식민 잔재 청산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어두운 전망 앞에 서도록 만든다.

식민 잔재 청산은 당장 물질 형태의 그 무엇을 철거·폐기·용도 변경하는 수순의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식민성을 제대로 걷어내는 방향과 성격의 청산 작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역』 복괘의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不遠復]”는 말에 유의하여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잔재 청산을 말하고 있는 이 비정상에 대해 통절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 버린 탓으로,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되찾을 마음을 제대로 가져 본 적이 없는 탓으로 애초부터 정상적인 교육론을 제대로 제시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안의 식민성’과 ‘우리 안의 분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에 공고하고도 삭제될 수 없는 등지를 틀고 말았다. 광복 75주년, 경술국치 110주년의 시점에서 다시 들고 나온 식민 잔재의 청산 작업, 그것은 물질 잔재와 의식 잔재의 동반 청산을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한다. 그 대전제를 놓고 근대수신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논의를 수행할 때 우리는 불모의 교육학 내지 사산된 교육학이라는 불명예를 넘어 한국 사회 적합형의 교육학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2. 12. 10. 심사기간: 2022. 12. 29.~2023. 01. 10. 게재확정일: 2023. 01. 16.

| 참고문헌 |

- 『中庸』, 『勉菴集』, 『毅菴集』, 『兪吉濬全書』, 『希菴遺稿』, 『遜軒遺稿』, 『續陰晴史』, 『高宗實錄』, 『純宗實錄附錄』, 『承政院日記』, 『독립신문』, 『皇城新聞』.
- 강정구·김종희, 「식민화 교육 담론의 자체 모순과 혼란: 『학부의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UCI: G704-000952, 2011..45.004)
-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UCI: G701:B-0010101631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권영배, 「파리장서운동과 성주유림」, 『대구사학』 137, 대구사학회, 2019. (DOI: 10.17751/DHR.137.95)
- 김남이·하상복, 「최남선의 신대한(新大韓) 기획과 ‘로빈슨 크루소」, 『동아연구』 5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9. (UCI: G704-001625.2009..57.002)
- 김미영, 「이상은의 ‘한국유학사관’과 ‘도의정신’: 국정국사교과서에 반영된 ‘실학관’ 비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50,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UCI: G704-001231.2014..50.001)
- 김미영, 「1910년대 이광수의 해외체험 연구」, 『인문논총』 7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UCI: G704-001612.2015.72.2.008)
- 김순전·사회영, 「식민지하 교사양성과 『사범학교수신서』 연구」, 『일본어문학』 36, 일본어문학회, 2007. (UCI: G704-000816.2007..36.013)
- 김승구, 「일제강점 말기 지원병제와 김동환의 시국 대응」,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UCI: G704-000952.2009..39.014)
- 김태웅, 『신식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파주: 서해문집, 2017.
- 김홍수, 「임오군란시기 일본의 조선정책과 여론」, 『군사연구』 136, 육군군사연구소, 2013. (DOI: 10.17934/jmhs..136.201312.35)
- 노관범, 『겹대기 개화는 가라: 한국 근대 유학 탐사』, 서울: 푸른역사, 2022.
- 남영우·渡辺理絵·山近久美子·이호상·小林茂, 「조선말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경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 135, 대한지리학회, 2009.
- 류진희, 「금지된 감정: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소설 기록과 탈/식민 센터멘털리즘」, 『비교문화연구』 54,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DOI: 10.21049/ccs.2019.54..35)
- 박균섭, 「선비의 공부와 인격: 유교 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논함」,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DOI: 10.52743/HR.59.19)
- _____,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인격교육』 16(1), 한국인격교육학회, 2022. (DOI: 10.18015/edumca.16.1.202202.69)
- _____, 「면암 최익현: 일본관, 창의격문, 의병활동」, 한국근대일본학회 2022년 5월 21일 제44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면담 최익현의 <일본정부에 부치는 편지[寄日本政府]>(1906.5.29.) 분석」, 한국 근대일본학회 2022년 10월 29일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박노자, 「서평: 김경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백산서당, 2003)에 대한 서평」, 『정신문화연구』 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UCI: G704-000772.2003.26.3.009)
- 박성순, 「고·순종연간 의병의 개념과 위상 변천 연구」,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UCI: G704-001739.2010..38.008)
- 박연호, 『사료로 읽는 한국 교육사』, 서울: 북이데아, 2013.
- 박한민, 「1907년 유길준의 귀국과 『평화극복책』 집필: 초고본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8, 고려사학회, 2017. (DOI: 10.21490/jskh.2017.08.68.153)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분야별 주요인물의 친일이력서: 친일파 99인 ①』, 서울: 돌베개, 1993.
- 배향섭,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분야별 주요인물의 친일이력서: 친일파 99인 ①』, 서울: 돌베개, 1993.
- 서동주,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과 계속되는 식민지주의: 정중현의 『제국대학의 조센징』을 통해 본 한국 지식계의 변방성」,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DOI: 10.22936/sh.57..201910.012)
- 손지연, 「일본에서 전개된 조선민족성 논의의 지형」, 『일본문화연구』 3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UCI: G704-001099.2011..39.010)
- 심철기, 「1907년 이후 『제국신문』의 성격과 의병 인식」, 『역사와 경계』 107, 부산경남사학회, 2018.
- 우남숙, 「유길준과 에드워드 모스 연구: 사상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UCI: G704-001873.2010.9.2.002)
- 俞億兼, 「先親 俞吉濬의 生涯」, 『三千里』 1938년 5월 1일.
- _____, 「皇國과 余의 心境」, 『三千里』 1941년 4월 1일.
- 윤건차, 이명실·심성보 역,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행동』, 서울: 살림터, 2016.
- 윤희동,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군사조사' 활동과 식민주의 역사학」,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2015. (UCI: G704-000893.2015.119..001)
- 이기석, 「The Independent를 통해 보는 조선말 한일관계의 이모저모」, 한국근대일본학회 2022년 10월 29일 제4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이선이,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담론 비교」, 『비교한국학』 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UCI : G704-000598.2008.16.2.003)
- 이승윤, 「『삼천리』에 나타난 역사기획물의 특징과 잡지의 방향성」, 『인문학연구』 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UCI: G704-SER000012761.2013..46.006)
- 이영하, 「갑오개혁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2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UCI: G704-000940.2007..27.006)
- 이준식, 「3·1혁명과 친일파의 대응양태」, 『인문과학연구』 26,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임경석, 「운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연구회, 2005. (UCI: G704-000054.2005..57.007)
- 임상석, 『산수격몽요결』 연구: 서구 격언과 일본 근대 행동규범의 번역을 통해 굴절된 한국 고전, 『코기토』 6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UCI: G704-SER000011366.2011.69..012)
- 전용호, 「김인환의 동학 연구와 문학비평」, 『한국학』 1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UCI: G704-000772.2011.34.4.006)
- 정성희, 「근대 초기 유학자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운양 김윤식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DOI: 10.18216/yuhak.2015.32..006)
- 정육재, 「일제 협력 유림의 유교인식: 1910~1920년대 경학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UCI: G704-001549.2007..16.006)
- 정찬주, 『소설 무소유』, 서울: 열림원, 2022.
- 조지숙, 「홍사단의 1차 약법개정 논의와 운동노선」, 『한국 근현대사연구』 87, 2018. (DOI: 10.29004/jkmch.2018.12.87.289)
- 주진오, 「박영효 vs 유길준(하)」, 『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 최덕수 편, 『유길준의 知-人, 상상과 경험의 근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최덕수, 「근대 계몽기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보호국론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2009. (UCI: G704-002002.2009..24.005)
- 최추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과시즘: 동우회(수양동우회) 기관지 <동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UCI: G704-000452.2007.35.3.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의식의 탐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파주: 청계출판사, 2017.
- 姜徳相, 「一國史を超えて: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研究の50年」,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668,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2014.
- 旗田巍編, 『朝鮮の近代史と日本』, 東京: 大和書房, 1987.
- Durant, W., The Story of Philosoph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2. 황문수 역, 『철학이야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 Abstract |

Critics on the Deceptive Formation of Modern Sooshin Discourse

Park, Kyoong-seop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history, the 'sooshin' (cultivating one's morals) discourse was not in a situation that could properly demonstrate self-consciousness, subjectivity, and discussions about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e twisted modern start in military, diplomatic, and political fields eventually conceived the spiritual colonial state of Koreans. Modern sooshin discourse advocated pedagogy in a way that emphasized educational love and strengthened teaching methods, but the pedagogy was only a barren or stillborn pedagogy in which the state and people were removed and self-consciousness and subjectivity stopped working. As such, modern education was not a process of true personality cultivation in itself due to deception and violence by colonial power and pro-Japanese group intellectuals. Through the portraits of enlightened intellectuals, we need to vividly remember that modern supremacy without national consciousness plunges the fate of the nation into

tragedy. They sold their country they should never have sold and enjoyed luxuries they should not have had. At the same time, if they mention education, the education was bound to be a crime of epistemological violence and ethical tyranny.

Key words

modern sooshin discourse, enlightened intellectuals, spiritual colonial state, epistemological violence, stillborn pedagogy